

## 제43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1. 일 자 : 1955(4288)년 11월 18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 3. 개의성립

참석인원 : 17명

朴贊圭, 李小圭, 金昌賢, 金京炫, 孫白洙, 李文吉, 吳世一, 金八用,  
金子洪,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金慶禧, 明南喆, 金吉煥, 정응표,  
金永完

불참의원

李福柱, 文宅鎬, 林一男, 金三星

출석 공무원

市長, 副市長, 各 課長, 道廳 地方長 行政係長, 地方稅係長

### 4. 의사일정

1. 제42회 회의록 통과

2. 시장 불신임의 건

### 5. 토의안건

◇議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식으로 개의를 선언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전 회의 회의록을 낭독 합니다.

◇書記

-제 42회 회의록 낭독

◇議長

-회의록 이의 없어 통과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金昌賢 의원

-시장 불심인 문제는 우리 목포시의 가장 큰 일이라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21명이 전부 모여서 토의 했으면 쓰나 오늘 불참한 의원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전원이 모인 가운데 하도록 하되 소집일자는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李小圭 의원

-재청이요.

◇李文吉 의원

-자치법에 의하여 긴급 소집하였고 또 성원 되었으니 오늘 이 문제를 토의할 것을 개의 합니다.

◇李在洪 의원

-재청이요.

◇鄭應杓 의원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표결 할 수 없는 일이나 동의와 개의를 각각 성립되어 있으니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와 개의를 가부를 물어서 진행할 것을 긴급 동의 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토론 종결의 긴급 동의를 성립되었으니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적 16명 중 가 10표, 부 6표로 가결

다음은 연기하자는 동의와 계속 하자는 개의를 가부를 묻겠습니다.

◇金南鎭 의원

- 金昌賢의원 동의에 대하여 기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내 21일에 계속할 것을 동의에 첨가합니다.

◇金昌賢 의원

- 金南鎭의원 동의 첨가는 안받겠습니다.  
단 개회 일자는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議長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李文吉의원의 개의에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시요.  
재적 16명 중 가 5표, 부 11표 부결  
다음은 동의에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시요.  
재적 16명 중 가 10표, 부 6표 가결

※오전 12시 20분 孫白洙 의원 참석

◇李小圭 의원

-기이 동의 가결로 무기 연기기로 되었으나 여러 의원들이 들어 주신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번안 동의합니다.

◇議長

-번의 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議長

-회의록 서명에 金八用, 鄭應杓 의원을 지명

◇폐회선언

-議長

(오전 12시 3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11월 20일

議長:朴 贊 圭

議員:金 八 用

” : 鄭 應 杓

作成者 書記:朴 燦 大

## 제 43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속기록

◇議長

-보고사항에 들어 가겠습니다.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市政係長

-회의록 낭독

◇議長

-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이의가 없습니까?

◇金昌賢 의원

- 없습니다.

◇議長

-이의가 없으면 통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안건에 들어 가겠습니다.

◇李在洪 의원

-어제 밤중에 긴급 회의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장 불신임이란 불미스러운 안건이라 불신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불신임해야 겠지요.

불신임이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법에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밤중에 긴급 소집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하여 의장이 마땅히 해명해 줄줄 알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이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말이 없으니 밤중에 긴급 소집한데 대한 해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議長

-시장 불신임이라 함은 중대한 일입니다.

21명 전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李福柱의원은 부친이 별세하시고 金三星의원도 오늘 아침 급작히 광주에 간다고 출석 못하고 孫白洙의원은 긴급 소집 요청은 구두로는 하고 어제까지 돌아올 약속을 했는데 돌아오지는 안했으나 정기적 의회 출석은 잘 하지 아니한 의원을 제외 하고도 토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소집했다. 긴급 소집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李在洪 의원

-의장은 긴급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긴급 소집이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을 요할 때 긴급 소집을 할 것인데 이번 긴급 소집은 그 긴급 소집 자체가 불순성을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해명해 주시오.

◇議長

-의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의장이 소집 할 수 있다고 요청이 있어서 소집한 것이다.

◇李在洪 의원

-의장은 자치법을 읽어 보았는가?

서울시에서는 7일전에 시읍장은 5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 불신임이란 중대한 안건을 내세우고 밤중에 긴급 소집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 어째서 긴급으로 돌리는가?

◇議長

-보통에도 할 수 있다.

의원은 밤중 밤중 하는데 밤중이 아니라 통지문을 전달한 사람이 늦게 가지고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안자의 설명이 있을 터이니 그에 대해서는 곧 잘 알 것입니다.

◇金昌賢 의원

- 李在洪의원께서는 긴급 소집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의장은 당연히 소집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목포시 최고의 중대사인데 밤중에 긴급 소집을 하고 또 현재 5인의 의원이 출석 못하고 있으니 재적 의원 21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토의해야 할 것이 인데 21명 전원이 모이더라도 최소 20명은 모여서 토의할 것을 좋다고 본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소집일자는 의장님한테 일임하고, 며칠 후에 전원이 출석하여 토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李小圭 의원

-재청이요.

◇議長

-동의를 가결되었습니다.

◇金永完 의원

-본인은 광주에 출장하여 4시경에 도청에 들렀는데 시장불신임을 위한 긴급 소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집 요청한 사람이 의장 외 1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5시에 도청을 출발하여 총무과장을 찾으려고 약 1시간 걸려 6시에 출발하여 10시 넘어서 목포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의장 자신이 3시 넘어서 소집 요청을 했고 의장은 의원의 소재도 파악치 못하고 소집을 했는가?

오늘 아침 시청에서 의장께서 李福柱 의원 댁에 초상이 났으니 의회를 연기할 수 없는가? 하는 전화를 한 모양인데 의장은 공을 무시하고 공사를 혼동치 않은가?

의장은 의원을 마음대로 움직일려고 한다.

의장은 21명의 대표가 아니냐?

孫白洙의원 문제도 의장이 어제 올 약속을 했다 하셨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약속도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의장께 출장 간다고 말을 안했습니다 만은 의장 자신이 긴급 소집에 날인 하였으니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李小圭 의원

-제가李小圭올시다.

李在洪의원과 金永完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견해의 차인 것 같습니다.

議長 자신이 긴급 소집을 한 것이 아니고 議長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6인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다면 소집해야 할 그리고 시장불신임이란 중요한 건을 왜 긴급 소집했냐 하였는데 타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중요 안전, 긴급 안전은 긴급 소집을 했고 시장 문제도 중요 안전이기 때문에 긴급 소집한 것이다.

소집 절차 여부가 오차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소집된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유효하다는 것이 자치법 해설에도 뚜렷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긴급 소집은 하등 법에 위배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21명 전원 출석하에 토의하자는 金昌賢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바이며, 시장불신임 문제는 심심 숙고할 기회를 주어 金永完, 李在洪의원에게 답함과 아울러 저의 말을 끝이겠다.

#### ◇李文吉 의원

-지금 각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으니 다 생략하고 자치법에 의해서 했고 또 성원도 되었으니 긴급 소집, 긴급하니 연기 말고 이 회의를 진행할 것을 개의합니다.

#### ◇李在洪 의원

- 副市長 李小圭 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나 서울시 같은 데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일정을 결정한 것이지만 우리 목포시 같은데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없고 議長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무기 연기란 어불성설이다.

긴급한 일이니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하지 무기연기란 있을 수 없다.

#### ◇明南喆 의원

-질의를 종결하고 시장불신임 무기명 투표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金永完 의원

-방금 시장 불신임을 표결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본인은 불신임건 조차 모른다.

불신임 조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은 해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의장 책임 있는 회의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鄭應杓 의원

-지금 이 회의는 이 자리에서 표결하자는 말이 있고 의원의 전원 출석하에 하자는 동의와 회의를 진행하자는 개의회가 각각 성립되었으니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李文吉 의원

-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이지 불신임을 표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議長

-토론 종결 동의회가 성립되었습니다.

◇金慶禧 의원

-긴급했기에 소집한 것이다.

우리가 적당하다고 해서 시장에게 시 살림을 맡겼으니 무슨 조건에 불신임 해야만 되는가?

불신임건을 해명해 주기 바란다.

◇議長

-그러면 종결 동의를 묻겠습니다.

가라고 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 16명 중 가 10표, 부 6표 가결

다음은 개의집의 계속해서 회의하자는 것과 동의는 중요하니 다음날 하자는 것입니다.

◇金南鎭 의원

-오늘 이 회의는 의원 다수가 참석하기 위하여 내 21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를 동의 집에 첨가합니다.

◇議長

-동의집 받겠습니까?

◇金昌賢 의원

-안받겠습니다.

◇李在洪 의원

-긴급 소집이라 해서 밤 9시에 통지서가 와서 서울에 갈려다 못하고 나와 출석하였는데 연기한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議長

-의장이란 사람이 독단은 할 수 없는 것이다.

◇李在洪 의원

-불신임에 대한 말을 해 주십시오.

◇吳世一 의원

-시장 불신임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시의원 전원 양심적으로 되어야 할 말이다.

陳福春의원은 나락마당건에 3만환 먹었다는 말을 들었다.

모 의원은 인제 정치맛이 난다.

이런 말을 들었다.

※ 장내 소란

◇陳福春 의원

- 吳世一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京炫의원 말에 의해서 3만환을 먹었다고 합시다.

吳世一의원은 가장 깨끗한 것 같이 말하지만 저 양옥집 3층집은 집없는 불쌍한 사람한테 주란 것이지

※ 장내 소란

◇議長

-표결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자는 개의를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 16명 중 가 5표, 부 11표 부결

◇李文吉 의원

-방척석에서 선량들이 그러느냐 하는 말이 들리는데 선진국가인 미국에서도 명찰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議長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하자는 동의를 묻겠습니다.

가라고 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오.

재석 16명 중 가 11표, 부 6표 가결

◇金慶禧 의원

-안건을 말해 주시오.

◇金永完 의원

-잘들 합니다.

방금 연기 가결이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河東賢이란 사람만치 깨끗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삼학도 공사 추진을 위하여 서울에 출장했는데 시장은 점심도 굶고 동분서주 했다는 것도 사실이며, 영양 부족으로 해서 입이 틀어지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42건의 공사 중 40건을 해결 수행한 것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기록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불신임 한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유달산 비석은 못 세워 주더라도 불신임이 무엇이냐?

광주 내무국장실에서 자유당 모 간부가 사표를 받으라고 쫓은 것을 보았다.

내무국장이 공무원은 잘못이 없으면 파면 못 시킨다고 말을 들었다.

수도 문제, 해무청 유치 문제 등을 위요하고 단결해야 할 이 때에 불신임은 언어도단이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해수욕장, 가축시장 문제를 가지고 불신임 운운 하지만 1954(4287)년도 결산은 金京炫의원이 1954(4287)년도 예산은 金昌賢의원이 동의해서 가결된 것입니다.

의장은 시민의 의장이요. 21명의 의장일 것입니다.

◇金慶禧 의원

-흑은 흑이다.

백은 백이다.

하는 것을 가려야 쓸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는 시민의 생활을 참작해서,

◇李在洪 의원

-우리 사이 좋게 합시다.

우리 잘 생각해서 합시다.

시장님은 그 전부터 4월이면 그만 둔다고 선출한 우리들과 같이 그만 두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자제분이 어느 중학교원을 하는데 2만환을 꾸어달란 말을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할려느냐 물은 즉 아버지가 4월이면 그만 둘텐데 그만 두면 집이 없습니다.

아버지 방을 들기 위해서 2만환만 꾸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기회가 중요 합니다.

목포의 사명을 완수할려면 시기적으로 보아 시장불신임이란 안될 말입니다.

우리 타산적으로 따져 봅시다.

시장이 소심적이다.

비 외교적이다 하지만 밤마다 주지육림에 그 호화스럽게 한다면 무슨 이(利)

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양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 유지들이 2, 3천만원씩 고출해서 양복 한 벌 해준 것입니다.

시장 개인보다 목포를 위해서 입어주시오 하고 이렇게 청결한 시장을 무자비하게 불신임한다는 것은 목포로 보아 큰 손실입니다.

2, 3일 전에 듣기에 25일 날 따님을 여운다고 합니다.

그래 시장님이 딸과 사위를 불러 놓고 나도 남부럽지 않게 훌륭한 결혼식은 하고 싶으나 경제상 할 수 없으니 냉수라도 놓고 예를 지낼 수 밖에 없으니 너희들 복 있으면 장래 잘해서 살으라고 하더라 말을 들었다. - 중 략 -  
시민의 대변인이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어 명랑한 목포 건설에 심심 숙고하시어 불신임이란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합시다.

◇金昌賢 의원

- 오늘 모인 분이 적다는 것보다 불신임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기 동의한 것입니다.

불신임 이유를 알아야 쓰겠기에 연기 동의한 것이니 이유를 알려 주기 바라는 동시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전 12시 20분 孫白洙 의원 출석

◇金京炫 의원

- 李在洪 의원의 河市長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웅변대회에 나가면 1등이겠습니다.

시민 전체나 나도 하 시장을 잘 압니다.

이러한 하 시장을 왜 불신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가?

청백만으로 우리 목포시의 건설은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중 략 -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제안자의 한 사람입니다.

연기하게 되었으니 이재홍 의원의 발언도 더 심심 숙고해 보겠습니다.

◇李小圭 의원

-동의를 성립되어서 폐회하여야 하나 기왕에 제안되었으니 긴급 동의로 21명 전원이 다 모이기도 어려우니 시장 불신임은 연기 말고, 명확히 조건을 들어서 여러 의원들이 들어주신다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번안 동의를 동의합니다.

◇議長

-번안 동의에 재청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오전 12시 35분)